

 재정경제부	보도참고자료		• 중요한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
	보도일시 10.29(월) 배포시부터		
생 산 일	2007.10.29(월)	생 산 부 서	금융허브협력과
담당과장	이현철(2150-2490)	담 당 자	이기현(2150-2492)

제목 : KAIST 금융전문대학원, 美 Rochester 경영대와 복수 학위(Dual Degree) MOU 체결

-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10.29 미국 로체스터 경영대학원 (Sim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)과 복수학위제 (Dual Degree)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
 - KAIST 금융MBA의 2년과정 중 로체스터대에서 10과목 (30학점)을 추가 이수하면 KAIST 금융MBA 학위와 로체스터대 금융학 석사(MS in Finance) 학위 동시 취득 가능
 - 로체스터대 금융학 석사과정은 FT(Financial Times) 평가기준 으로 재무·회계 분야 5위에 선정된 우수한 학위과정으로,
 - 상대학교의 심사 없이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의 자체 자격심사 만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어 KAIST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,
 - 학점인정제 방식을 도입해 로체스터대에서 30학점만 이수 하면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기간·비용의 획기적 절감효과 기대
 - 한편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동북아 금융허브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06.3월 재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설립 되었으며(06~07년간 정부예산 58억원 지원, 08년~09년 각 20억원 지원 계획),
 - 1기 졸업생(08년 약 80명 졸업예정) 대부분이 외국계 투자은행 및 국내 우수 금융회사로부터 취업제안을 받는 등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평가
- ※ 세부내용은 KAIST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연락처 :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강보경, 02-958-3561, kbk1060@business.kaist.ac.kr)
- <첨부 : 복수학위 MOU 체결 보도자료(KAIST 작성)>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KAIST 금융전문대학원, 美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과 복수학위 MOU 체결

- ✓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의 입학 심사만으로 KAIST MBA 학위와 로체스터대 (University of Rochester) 금융학 석사 학위 동시 취득 가능
- ✓ 학생들의 실질적인 복수학위 취득 가능성 높은 복수학위제로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기대

KAIST 금융전문대학원(정구열 금융전문대학장: <http://business.kaist.ac.kr>)은 29일 오전 KAIST 경영대학에서 금융 분야 MBA에서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(Sim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)과 복수학위제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.

이에 따라 KAIST 금융MBA의 총 2년 과정 중 로체스터대에서 10과목(30학점)을 추가로 이수하면 KAIST 금융MBA 학위와 로체스터대 금융학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. 현재 14명의 재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이미 참가 중이며, 매년 전체 입학 학생 100명 중 20여 명 정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.

본 복수학위제는 타 대학의 복수학위제가 상대 외국학교의 입학심사 및 수학기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학위 취득이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실제 취득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. 정규 로체스터대 금융학 석사과정은 파이낸셜 타임즈(Financial Times)가 선정한 올해 재무/회계 분야 5위에 오른 학교이며, MBA 취득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인 만큼 엄격한 입학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KAIST와 로체스터대의 복수학위제는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의 자체 자격심사만으로 입학허가가 가능하다. 또한 학점인정제 방식을 도입해 로체스터대 금융 과목 중 30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 기간과 비용을 동시에 단축할 수 있다.

최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, 이에 따라 국제 금융전문가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,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전문대학원을 출범, 운영하고 있는 KAIST의 이 같은 시도는 기존 복수학위제를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복수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으며,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 MBA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과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금융 MBA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다.

정구열 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은 '한국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 전문 인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'라며 '금융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는 두 경영대학원의 복수학위제 실시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국내 글로벌 금융 인력 양성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'고 취지를 밝혔다.

한편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동북아 금융허브시대에 발 맞추어 금융이론과 실무지식 및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해 2월 재정경제부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특히 올해 취업을 준비중인 1기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현재 금융 전문인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JP Morgan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은행 및 국내 유수 금융기관 등에서 다수의 취업 제안을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.

또, 로체스터대학은 미국 최고의 교육평가 기관인 카플란이 2007년 “새로운 아이비 (News Ivies)”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고, 출신 동문 및 교수진 중에서 노벨상과 풀리처상을 수상한 인물이 각각 8명과 12명에 이른다.

이러한 로체스터대의 경영대학원은 파이낸셜 타임즈 (Financial Times)가 선정한 2007년 미국 경영대학원 랭킹에서 22위를 차지한바 있으며, 특히 재무·회계 분야에서는 5위에 오르기도 해 금융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명성을 날리고 있다.

<끝>

Press Information

KAIST 금융전문대학원 강보경 T +822 958 3561 / C.P 011-9116-3147

E-mail kbk1060@business.kaist.ac.kr

KAIST 경영대학 마케팅실 황은정 T +822 958 3246 / C.P 017-275-2862

E-mail hej@business.kaist.ac.kr

홍보대행사 시너지힐앤놀튼 박혜진 과장 T +822 2287 0942 / C.P +822 11 9880 8770

E-mail kate.park@hillandknowlton.co.kr

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하여

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동북아 금융허브시대에 발 맞추어 금융이론과 실무지식 및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금융 MBA 중심의 금융 중심 대학원으로,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내의 금융공학 MBA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재정경제부와 MOU 를 체결하고 더욱 특화된 교과과정, 우수한 교수진 및 KAIST 만의 독특한 학습문화를 바탕으로 2006년 2월 개원하였다.

이론 및 실무 중심의 고급 금융교육을 지향하는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, 모든 강의가 원칙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며 자산 관리, 금융 공학, 재무 경영 및 전략, 투자 금융, 보험, 위험 관리, 글로벌 금융 시장, 회계 및 재무 관리 등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금융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, KAIST 경영대학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금융전공 박사학위도 수여하고 있다. 금융공학과정 및 금융전문대학원이 배출한 최고급의 금융 인재들은 현재 학계, 연구소, 금융기관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.